

‘읽기의 순결함’ 지키며 읽는다 변화 많은 세상에 변치 말고 남길

고려대 의과대 신상원교수

신상원(37, 고려대 의과대 내과 혈액종양 전문의)교수의 취미는 서평읽기다. 책읽기를 워낙 즐기다 보니 책 고르기에 관심이 생겼고 서평에 자연 눈길이 가더라는 것. 환자 진료하러 학생들 가르치러 요즈음 같이 바쁠 때 서평은 책에 대한 갈급증을 채워주는 역할도 넉넉하게 해낸다.

‘책’과 ‘서평’에 대한 남다른 느낌과 애착 때문인지 신교수가 바쁜 짬을 내어 탐독하는 유일한 잡지가 《출판저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던 때라 신나게 책을 읽는데, 그즈음 《출판저널》 창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신청했지요.”

신교수는 《출판저널》을 처음 받아본 순간 일종의 ‘문화충격’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여기 저기 잡지들을 기웃거리며 마치 ‘언어 읽는 듯’ 했던 서평들을 한꺼번에 여러 편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큰 기쁨. 책과 그 주변에 관한 이야기들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 게다가 색다른 판형이며 세련되고 간결한 디자인과 사진, 어느 것 하나 맘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다.

9년간 한 호도 빠짐없이 《출판저널》을 읽었지만 신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책은 없다. ‘수집’이라는 목적이 생기면 그만큼 관심이 분산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는 이것을 ‘읽기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한다.

“《출판저널》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만한 잡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내가 문득 긴 머리를 자르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 신교수는 《출판저널》에 이런 변화가 생길까봐 염려스럽다. 변화 많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남아주는 것, 그것이 신교수 최대의 바람이다.

— 박남정 기자



책 정보 얻는 유일한 매체 경제·경영분야 책 소개 적어 아쉬움

삼성정보센터 이윤정 대리

삼성그룹의 정보센터는 《출판저널》의 1호 정기구독자다. 구독층이 주로 출판사와 교수, 도서관이 주를 이루던 초창기 역사를 더듬어 보면 특이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정보를 다루는 부서의 특성상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였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출판저널》을 가장 꼼꼼하게 읽고 있는 이윤정 대리(28)의 말이다. 도서관이나 정보 계통에서 수서를 담당할 사람에게는 책을 구매하는 선정기준이라는 것.

“특히 전문가를 필자로 선정해 새로 나온 책의 내용과 질을 가늠케 하는 서평란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센터의 성격상 《출판저널》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문·사회분야 책에 비해 경영·경제 분야의 소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처음 구독하던 당시와는 정보센터의 위상이 많이 달라져

최신 경영정보나 세계 경제흐름을 알 수 있는 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정보센터는 A/V 정보센터와의 결합을 통해 가장 치열한 전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출판저널》도 그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한편으로 변화를 수용 못하는 소극적인 매체라는 느낌을 준다. 훌륭한 전통과 좋은 내용이면서도 좀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도 소극적인 탓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 마치 디지털화 앞에 선 종이책처럼.

그렇지만 이윤정씨는 책을 읽고 쓰다듬으면서 생기는 육친같은 감정은 ‘종이책’이 아니고는 생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정보센터의 서가가 점점 비디오와 CD롬으로 채워져 가고 있지만 《출판저널》만큼은 가정집의 책꽂이에도, 기업체의 서가에도 끝내 남는 한 권의 종이책이 되길 기원했다.

— 이현주 기자

주요취급간행물

신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시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 외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패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기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02) 735-5401/3
- FAX주문: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



수서업무에 필요한 친숙한 잡지 사서의 연륜과 같이해

정독도서관 사서 김기애씨

김기애(33, 정독도서관 사서)씨의 《출판저널》에 대한 애정은 '모태신앙'이나 다름없다. 전북대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도봉도서관에서 출발한 사서의 연륜이 《출판저널》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출판저널》은 사서에게 친숙한 잡지입니다. 수서업무에 필요한 도구로서 신·구간 도서의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편집체제도 깔끔하고, 다양한 학문세계를 체계 있게 전달해줘 책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고 김기애씨는 말한다.

“어떤 분야의 책을 한데 모아 흐름을 짚어 내는 기획 취재물을 눈여겨 봅니다.”

또한 서평을 매개로 촉발된 지상논쟁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요즘은 뜸한데 수준 높은 지상논쟁을 자주 펼쳤으면 좋겠다고 주문한다.

수서업무에서 전산업무로 보직이 바뀌고, 결혼과 출산으로 꼼꼼하게 잡지를 들여다 볼 시간은 줄었지만 기획기사를 중심으로 한 열독률은 여전히 높다. 사서의 '감'을 유지하는 데 《출판저널》만한 매체가

없는 까닭이다.

김기애씨는 직업정신이 투철한 적극적인 독자다. 도서관과는 별개로 개인구독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료 수집에 기울이는 열정이 남다르다. 94년 6월까지 실렸던 〈신간목록〉은 수서업무에 쓸모 있는 자료였다. 간혹 부정확한 서지정보가 보이면 전화를 통해 문의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얼굴》은 《출판저널》 제154호(1994년 8월 20일)를 보고, 책을 엮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기증을 받았다. 이런 인연으로 지금도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초대권을 받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출판저널》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알차고 좋은 잡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신간이 약간 늦게 소개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하는 김기애씨는 공공도서관과 사서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 최성일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교육 생활의 일부가 된 '책읽기운동'

문일중학교 교사 광광택씨

“취미란에 '독서'라고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독서는 생활의 일부이지 어떻게 취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루 15분만이라도 책을 읽으면 최소한 한 페이지는 읽을 수 있어요.”

문일중학교 사회 교사 광광택씨(55)는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출판저널》 창간호부터의 오랜 독자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읽기뿐 아니라 쓰기에도 열심인 광씨는 강나무 출판사에서 출간한 《마음의 두레박》을 비롯, 70년대부터 70여권을 출판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낸 책도 20여종에 이른다.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학교에서 다 가르치지 못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읽기 운동'을 펼쳐 왔고 '교사독서동호회'를 구성, 운영했다. 모임의 문집인 《교원문원》과 《교원문학》이라는 제호의 무크도 3-4호쯤 냈다.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선정 도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집계된 시집들도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것들은 못돼요.”

《출판저널》을 꼼꼼히 읽는 광씨는 서평과 신간안내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책을 구입한다. 책을 찾을 때 서지사항이 자세해서 좋다. '새책 속으로'처럼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점도 변화로 꼽았다.

“서평과 기획들을 심신분류법으로 분류해서 편집하면 어떨까요. '새로 나온 책'은 좀더 깊이있고 폭넓게 다루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한 세대 전에 나왔던 책들 중 지금도 읽힐 만한 좋은 책들을 홍보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는 출판계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더욱 황폐해질까 우려한다. 정부지원, 세계은행 등 실지로 출판계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고 바란다.

— 마정미 기자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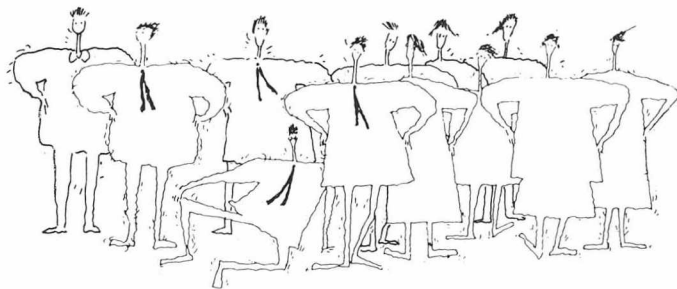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POINT-LINE

포인트·라인은 픽처북, 스토리북, 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 카드, 참고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 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토, 모래 그림 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들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기회를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